

미혼 남녀 50% “결혼 안 해도 좋아”

한국의 13세 이상 인구 가운데 48% 가량만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들이 절반에도 못 미친 것은 역대 조사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남성보다 여성이 더 결혼에 부정적이었다.

6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한국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사회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통계청은 지난 5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2만5,843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9,000명을 대상으로 가족과 교육, 보건, 안전, 환경 등 5개 부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3세 이상 인구 중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8.1%를 기록해,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이 비율은 지난 2011년 64.7%에 달해지만 매 조사마다 하락해 2016년에는 51.9%까지 떨어졌고, 이번 조사에서는 50% 밑으로 하락한 것이다.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46.6%를 기록했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였다.

결혼에 대한 의견도 남녀가 사뭇 달랐다. 남자(52.8%)는 여전히 절반 이상이 결혼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자는 43.5%로 남자보다 9.3%포인트가량 낮았다. 결혼을 하지 말아

야 한다는 의견은 반대로 여자(3.8%)가 남자(2.2%)보다 높았다.

경제적인 문제가 주 원인으로 꼽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원인에 대한 조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면서도 “결혼에 대한 시각이 변화한 데는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겠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는 결혼식 비용이 지나친다는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대상 중 70.6%가 한국 사회의 결혼 비용과 의식 절차를 포함한 결혼식 문화가 ‘과도한 편’이라고 생각했다. 이 비중은 2년 전보다 4.8%포인트가량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반면 동거에 대한 시각은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결혼하지 않고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율은 56.4%로 절반을 넘어섰다. 2010년에는 40.5%에 불과했지만 8년 만에 16%포인트가량 증가한 셈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사는 비중이 계속 줄고 있다. 게다가 부모의 노후 생계를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은 2008년 40.7%에서 올해 26.7%로 14%포인트가량 줄었다.

원격 몰카에 ‘렌즈 포비아’ 확산

집안에 놓인 가전제품에 달린 카메라 렌즈가 사생활을 유출하는 용도로 악용될까 우려하는 ‘렌즈 포비아(공포증)’가 확산되고 있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휴대전화, PC는 물론이고 로봇청소기, 비디오게임기 등 일상에서 쓰이는 각종 전자제품에 렌즈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를 악용한 ‘원격 몰카(몰카카메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7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가전제품 해킹으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 경찰은 1일 반려동물을 관찰하기 위한 홈 CCTV를 해킹해 여성 약 5,000명의 사생활을 엿보고 불법 촬영한 일당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에는 가정·영업용 매장의 IP 카메라 1,400여 대를 해킹해 여성이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엿보고 영상을 유포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반려견을 기르는 사진작가 장모 씨(37·여)는 3년 전 집안에 중국산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 장 씨가 집을 비운 동안 혼자 집에 남아있는 반려견이 걱정돼서다. 외출이 잦은 장 씨는 항상 CCTV를 켜놓는다. 하지만 누군가 CCTV를 해킹해서 훑쳐보지 않을까 불안하다. 그래서 귀가 후에는 손수건으로 렌즈를 덮어둔다. 장 씨는 “옷차림이 가벼운 여름에는 더욱 신경이 쓰여 렌즈를 꼼꼼히 가린다.”고 말했다.

유명인을 특정한 해킹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 모 씨(23)는 2015년 아프리카 TV 인기 방송진행자(BJ)의 PC 웹캠카메라를 해킹해 사생활을 훑쳐보고 이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가 사실상 해킹의 위협에 노출돼 있는 셈”이라고 말한다. 일상에서 사용되는 가전제품도 예외는 아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와이파이와 연결된 로봇청소기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거나 냉장고 속 식품을 체크하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보급됐기 때문이다.

해커들은 보안이 취약한 곳으로 침투해 가전제품에 악성코드와 해킹 프로그램을 심는다. 해킹에 성공하면 기기를 원격으로 조종하거나 렌즈를 통해 이용자의 사생활을 훑쳐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전제품 보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가정용 인터넷 공유기와 가전제품의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해 두는 것이 첫 번째다. 자동으로 설정된 기본값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해킹당할 위험이 높다.

보안 성능을 높일 수 있도록 제품의 펌웨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해킹 예방이 도움이 된다.

34년을 오직 한 길

벨플라워/세리토스/다우니/플러튼/롱비치/놀릭

빅토리 바디샵

VICTORY BODY & SHOP

LIFETIME WARRANTY!

최대의 시설 / 만족한 서비스 / 저렴한 가격

- ✓ 보험 수리 전문
(일단, 전화 먼저 주세요!!)
- ✓ Lease Return
- ✓ 보험 없는 분들 오시면
부담없이 수리해 드립니다
- ✓ 전화 or 방문상담 환영
- ✓ Towing & Rent Car



☎ (562)920-9745~6
17441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Email: victoryautobody@gmail.com

